

#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순창장류축제 성공 개최 만전

### 남원시,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세수 감소 위기 극복·재정건전성 확보

남원시가 국제 감소에 따른 보 통교부세 삭감으 로 인한 세수 감 소 위기를 지방 채 발행 없이 신 속한 재정 다이 어트로 극복해 주목을 받고 있 다.

정부가 올해 국제 감소에 따라 보통 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 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 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 으로 수립했다.

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를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



최경식 남원시장

하는데 성공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 수 감소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신속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수 결 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 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결손을 최소화했지만,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생활 밀접사 업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1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방재정의 우수 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민선 8기 지방 채 제로도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건전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 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다채로운 프로그램·편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 맞이 준비 박차

순창군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 지 3일간 개최되는 제19회 순창장류축 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제 개막을 50일 앞둔 지금, 순창군 은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진 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 화를 이끌어낼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 이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 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곳곳에 아 너한 쉼터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만족 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전 다함께 순창장류만들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발효나라 1997' 등이 준비 돼 있다. 특히 '도전 다함께 순창장류 만들기' 프로그램은 11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종류 의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어보는 체험 으로, 축제의 핵심인 '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일 저녁 차별화된 문화행사 를 통해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개막 퍼포먼스 와 함께 대형 가수의 축하공연이, 둘째 날에는 청소년 가요제가, 마지막 날에는 7080 콘서트가 준비돼 있어 세 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이외에도 군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논·밭, 비닐하우스 농작업 현장 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농업인들에게 여름철 농작업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군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및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안전 리더 활동, 관내 농업인 단체의 안전 실천 다짐 퍼포먼스, 리플릿 배부, SNS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4. 10. 11~10. 13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문화체육관광센터

축제장 곳곳에 쉼터를 조성하고, 읍·면 먹거리 부스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 과 관광객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해 대화 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50일 앞으로 다 가온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축 제를 통해 순창 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축제 홍보를 위해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는 물론, TV 방송과 지면 광고 등 다양한 채널 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으 며, 인근 지자체 방문 홍보와 고속도 로 휴게소 게릴라 마케팅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계획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성년 맞은 청소년 특별한 경험 선사

### 임실군, 청소년참여 활성화사업 '찬란한 스무살 지금부터' 전개

임실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을 전개했다.

군은 지난 21일 청소년참여 활성화 사업 '찬란한 스무살 지금부터!!'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준비한 이번 프 로그램은 올해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 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년이 된 나를 의미 있게 기념하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여 미래를 응원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1부는 세상에 오로지 단 하나의 향 '나만의 향수 만들기'로 구

성됐다.

2부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전문 강사가 개인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맞는 색상 조합을 추천해 주며 자신과 어울리는 꾸밈법을 알려주는 시 간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성년이 된 지금부 터 미래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지 를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편지를 작성 하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시간 이 마련됐다.

특히 3부에서 진행된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는 5년 후 성년의 날에 맞춰

다시 전달될 예정으로, 청소년들이 자 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되새 기고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는 기회 를 가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예을 학생(대 학교 1)은 "성년의 날을 그냥 지나쳤 는데 다양한 체험으로 기념할 수 있 어서 좋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 는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 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젊음이 가진 열정과 가능성으로 우리 의 지역사회를 더 밝고 희망적으로 만 들어 줄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고 말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력투구'

남원시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제2 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 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 인원 5천 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 교를 설립하고자 전국 지자체 대상으 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이에 남원시는 국·공유지이면서 계 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하게 개발

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여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인 남원은 전 라선 KTX 및 SRT와 연결되어 있으 며,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 접근성이 좋고 달빛철도가 2030년 개 통 예정으로 수도권과 영·호남권역 의 교육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 후보지는 우수한 교통 여건뿐 만 아니라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을 기반으로 연수·교육·관광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

추고 있어 경찰청이 요구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세계적인 신입경찰 양 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기관이 들어서기에 효과적인 입지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균형 발전 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면 서 천혜의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남 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협력하여 반드시 남원에 유치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9월중 제2중앙경찰학 교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후 10 월 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한·육우 가격 하락 따른 경영안정 지원 총력

남원시는 한우 산지가격 폭락과 사 료값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4년도 5개분야 총사업비 19,644백만원 '조사료 분야 4,195백만 원, FTA피해보전 직불금 640백만원, 사료구매자금(융자) 13,000백만원, 사 료경영안정 이차보전금 57백만원, 시 설장비 등 1,75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공급량 과잉으로 초래된 한우 산지 가격의 폭락은 농가 자율적인 수 급 조절 노력 등으로 전국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8.2만(2.9%) 감소하였 고, 24년도 12월까지의 한우 사육 마 릿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우 도매가는 21년도(2만 4,165원/kg)에 정점을 찍고 24년 7월 기준 1만5,434원/kg으로 3년간 36.1%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곡물 가 불안정으로 비육우 배합사료가격

은 21년도(463원/kg)부터 상승하여 22 년 10월(614원/kg) 최고점을 찍은 이 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24년 1월까지 546원/kg로 여전히 이전평균가격 대비 보다는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이 형성 되고 있어, 한우농가 경영의 커다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조사료 재배면 적과 생산량의 확대를 축산농가의 사 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 다.

남원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농가는 정부 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교육 실시

임실군이 폭염특보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발생 현 황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온 열질환자 2,213명 중 농업 분야 는 412명(전부 41명)으로 전체 18.0%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괴경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콜링 타올 및 농작업용 장갑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보급 하고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 다.

또한 2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논·밭, 비닐하우스 농작업 현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여름철 농작업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군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및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안전 리더 활동, 관내 농업인 단체의 안전 실천 다짐 퍼포먼스, 리플릿 배부, SNS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중학생 해외영어 캠프 떠나

지난 20일 오후 5시 남원수화 지원센터에서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의 영어 캠프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의 영어 캠프'는 남원시 1호 고향사랑기 금사업으로, 2023년 시행된 고향 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기부금 이 그 재원이다.

남원교육지원청, 뉴질랜드 케 이스브룩(Casebrook Intermediate School) 공립 중학교와의 협력으 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관내 중 학생 24명을 선발하여 17박 18 일(7.17.~8.3.)동안 수업 참석 및 현지 가정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등 글로벌 마인드 함 양의 기회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 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 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들 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 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 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들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